

종교가 청소년들의 종교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¹⁾

한 내 창
(원광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종교가 종교적 편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종교성이 종교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성이 종교적 편견 구성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군숭배, 조상제사, 그리고 전통적 사찰 문화재 지정 쟁점과 관련하여 개신교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종교성이 높을수록 편파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학생의 종교적 환경에 의해서도 보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 편견의 일차집단 결정(結晶)성 정도가 높아 종교가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 내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편견 척도들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편견 척도들을 도입하여 종교성과의 관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종교성, 종교적 편견, 종교 갈등, 종교성 측정

* 본 연구는 1999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Abstract》

**Effects of Religiosity on Religious
Prejudice for Adolescents**

Han, Nae Chang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planned to examine whether religions promoted religious prejudice.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model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data was collected for boys and girls(n=827) in fiv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The findings showed that student's religios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igious prejudice. That is, as subject's religiosity becomes greater, his/her religious prejudice score increases. With respect to the issues of worship toward "Dangun," sacrifice toward ancestors, and designation of temples as national monuments, students affiliated with Protestants tend to have significantly high antagonistic attitudes, compared with other religious groups. And overall, it is likely that high religious involvement shows high degree of religious prejudice. And it appears that this tendency is strengthened by subject's religious environment. That is, as the tendency of religious crystallization through primary groups such as family and friends was conspicuous, it is likely that students accept religious beliefs and attitudes provided by their primary groups without any critical speculation processes.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the future research needs to adopt measures of social prejudices beyond the religious prejudice measures which were used in this study.

I. 이끄는 말

허트(Haught)는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종교는 과연 선(善)을 위한 세력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들을 열거한 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다.¹⁾ 즉, 종교는 종교적 성자들의 그럴듯한 이념

1) Haught, James A., Holy Horrors: An Illustrated History of Religious Murder and Madnes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0, Pp. 217-225.

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어서는 인류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고뇌를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종교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대량 살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한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짐으로써 타 집단에 대한 증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이를 증폭시켜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과거처럼 노골적인 종교적 만행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티벳,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유고(코소보 지역), 북아일랜드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집단간·집단내 분쟁의 핵심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그 호소력을 상실한 지금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집단 갈등의 사회적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²⁾ 이러한 종교적 갈등의 기저에는 종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

편견이란 ‘집단간 부정적 태도’³⁾를 말한다. 종교적 편견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종교에 의해 조장되는 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편견들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공식적인 규범이나 지식과 배치되는 종교적 세계관,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관·직업윤리관과는 다른 종교적 이데올로기, 기복적 주술 등을 강조하며 상식과 배치되는 신념, 종교적 민족주의 등이 그것들이다.⁴⁾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지닌 구성원들에게 종교적 부분 문화를 주입시킴으로써 집단간 균열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를 신앙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주류 또는 다른 부분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적응 양식을 파괴하며, 건전한 상식과 지식을 배척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협한 신념이 사회내 하위 집단간, 또는 사회 집단간 갈등을 촉매하고 있다.

특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종교들은 개인들에게 건전한 사회 의식과 집단 통합 이데올로기 제공보다는 종교적 민족주의를 조장

2) 윤이흠, 「종교 갈등의 현실과 화해의 모색: 한국의 상황에서」, 《현대사회》 7권 1호(통권 25호), 1987, 56-67쪽; 김종서, 「종교 갈등을 넘어서는 길」, 《多寶》 13(3월 발행), 1995, 55-61쪽.

3) Hunsberger, Bruce, Religion and prejudice: the rol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 right-wing authoritarianism, Journal of Social Issues, 51, 1995, Pp.113-129.

4) 정순일·한내창, 종교성과 사회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1권, 1997, 645-670쪽.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복신앙에 기초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과 안녕을 불고 하고 자기 집단의 성장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낳고 있는 것이다.⁵⁾ 물론 이러한 종교의 편협한 관행이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는 변명도 없지 않다.⁶⁾ 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심스런 연구 결과들은 사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오고 있다. 즉, 일부 건실치 못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인들이 편협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 자체가 그러한 편협한 태도와 행동을 조장 내지는 후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념들이 국내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종교적 편견 현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적 편견 척도들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고,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간,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편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태도와 어머니의 태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종교적 편견의 가족 내 결정성 정도를 평가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성과 종교적 편견을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편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을 위해 이해해야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특히 청소년들이 기성세대 종교인들이 보강하고 있는 종교적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우려할 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순수해야 하고, 건전한 비평 의식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이 종교와 관련하여 무비판적으로 편파적 태도를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교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편파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이로 인해 사회적 균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5) 노길명, 「한국 종교문화의 성격과 과제」, 정산종사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未來社會와 宗教』 (익산 :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2000), 249-261쪽.

6) Batson, C. Daniel,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 1976, Pp. 29-45.

II. 이론적 배경

한 편으로 종교는 인본주의적 관심을 지지하여⁷⁾ 평등성과 형제애, 동정(compassion)과 인정(humanheartedness), 공유와 협동, 관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⁸⁾ 그러나 과학적 연구가 등장하면서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믿음에 회의를 갖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결같이 종교인들이 인종적으로 덜 관용적이며,⁹⁾ 더 독단적이고, 권위적·민족중심적이며,¹⁰⁾ 편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 이에 당황한 일부 학자들은 종교를 변호하고자 노력하였다.¹²⁾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의 참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데 종교를 잘못 신앙하고 있는 일부 종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이들 종교적 신념이 약하고 진실되게 신앙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교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들 ‘거짓된 종교’로부터 ‘참 종교’를 분리해내어 ‘참 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적 신앙의 동기가 개념화되었다. 종교성을 종교적 참여 빈도를 측정하여 종교적 열성도를 측정하던 종래의 방식이 위와 같은 논리적 모순¹³⁾을 해결할 수 없자, 알포트와 로스(Allport & Ross) 등은 신앙의 동기에 따라 종교인들을 분류하고자 하는 생각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7) Batson, C. Daniel,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 1976, Pp. 29-45.

8) Allport, Gordon W. & Ross, J. Michael,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pp. 432-443.

9) Kirkpatrick, L. A.(1988),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s, Pp. 1-31, in D. O. Moberg and M. L. Lynn (ed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 Greenwich, CT: JAI Press.

10) Rokeach, Milton(1960), The Open and Closed Mind: Investigations into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and Personality Systems, New York: Basic Books.

11) Griffin, Glenn A. Elmer, Gorsuch, Richard L. & Davis, Andrea-Lee,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religious orientation, social norms, and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6, 1987, 358-365; Hunsberger, Bruce, Religion and prejudice: the rol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 right-wing authoritarianism, Journal of Social Issues, 51, 1995, 113-129.

12) Batson, 앞의 글.

13) 관용과 자비·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타집단에 대해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독선적이라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드러남.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종교적 태도의 원천을 종교인들 가운데 특정한 신앙 동기를 가진 집단에 귀속시켰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질적 종교성과 비본질적 종교성 차원이 개념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이나 위안, 사교, 위로, 지위 획득과 같은 자신의 인간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 그 자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 내고자 하였다. 전자를 비본질적 종교성(ER: extrinsic religiosity)이라 이름 붙이고, 후자를 본질적 종교성(IR: intrinsic religiosity)이라 이름하였다. ER은 종교를 수단으로 간주하는데 반하여, IR은 종교를 목적으로 간주한다. 알포트와 로스는 ER과 IR 각 차원을 중앙치(median)로 양분한 다음 이들을 교차시켜 4개 범주의 집단¹⁴⁾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간주하고 신앙하는 사람들(IR)’은 그렇지 않은데 ‘종교를 수단으로 간주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ER)’ 때문에 종교로 인한 부정적 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화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즉, 신앙 동기의 차원화를 통해 관용을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편협하고 불관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문제가 설명되었는가? 알포트와 로스 본질적·비본질적 신앙 동기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논리적 문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고 본인들은 이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많은 후속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여 왔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적 편견이 더 강하다는 연구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¹⁶⁾ 또는 알포트 등에 의해 주장된 IR과 편견간 부적 관계는 통계적 가공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¹⁷⁾ 즉,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 작용하여 IR의 응답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4) (i) 본질적 동기의 집단(본질적 종교성(IR)이 높은 반면, 비본질적 종교성(ER)은 낮은 집단), 비본질적 동기의 집단(ER은 높은 반면, IR 점수는 낮은 집단), 무차별적으로 친종교적인 집단(IR & ER 점수 모두 높은 집단),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반종교적인 집단(IR & ER 점수 모두 낮은 집단).

15) Donahue, Michael J.,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985, 400-419.

16) Thompson, Andrew D., Open-mindedness and indiscriminate anti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3, 1974, 471-477; Griffin, Gorsuch, & Davis, 앞의 글.

17) Batson, 앞의 글; Batson, C. Daniel, Naifeh, Stephen J. & Pate, Suzanne, Social desirability, religious orientation, and racial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 1978, 31-41.

사회적 바람직성이 IR에 선행하여 IR의 응답 경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IR과 편견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IR과 편견간 부적 관계는 의사적(擬似的: spurious)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나면 IR과 편견간 부적 관계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Batson 등의 연구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결론은 자명하다. 사회에 종교적 편견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 편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 때문이라는 설명은 그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종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배타적 신념들을 조장하여 사회의 균열적 요소들을 배양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밖으로 내거는 사회적 대의명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라 하겠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종교의 정체감 형성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종교의 어떠한 측면, 또는 어떤 가르침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가? ‘절대적 진리의 주장,’¹⁸⁾ ‘다른 집단에 대한 비교 우위의 강조,’¹⁹⁾ ‘권위예의 복종 강조,’²⁰⁾ ‘민족주의의 강조,’²¹⁾ ‘집단 내적 결속력의 강조,’²²⁾ 등이 종교인들을 타 집단에 대해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다고 본다. 사실상 종교가 강조하는 강한 신념 자체가 바로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다. 비판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가 과도하게 강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편견인 것이다. 즉, 선(善) 자체도 과도하게 강조될 때 집단을 파괴하고 타인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데, 자기 종교의 신념을 강조할 때 이것이 자연스레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의 진화론적 성장주의 논리가 종교에 접목될 때 이것은 종교의 배타주의를 낳고 집단 간 균열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이러한 성장주의 환상에 몰두하였다는 사실이 주어지면, 이들에 의해 표출되는 집단이기주의적 이념이 종교인들을 어느 정도 사회화시켰을지는 자명하다 하겠다.

18) Allport, Gordon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19) Glock, C. Y. & Stark, R.(1966), *Christian Beliefs and Anti-Semitism*, New York: Harper and Row.

20) Altemeyer, B.(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21) Eisinga, R., Felling, A. & Peters, J., Religious belief, church involvement, and ethnocentrism in the Netherland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990, 54-75.

22) Lazerwitz, Bernard, Winter, J. Alan & Dashefsky, Arnold, Localism, religiosity, orthodoxy, and liberalism: the case of Jew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7, 1988, 229-242.

이상과 같은 논리적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구하고자 한다. 첫째, 비종교적 청소년들에 비하여 종교적 청소년들이 갖는 종교적 편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서 종교별로 종교적 편견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각종의 통계적 변수를 도입한 후에도 종교가 종교적 편견에 긍정적 순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종교적 사회화는 종교적 편견 해소를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I.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백준흠²³⁾의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백준흠은 전북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원불교 교립 5개 남녀 중고등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배포하여 자필 기재하도록 하고 설문지를 회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회수하여 편집과정을 거쳐²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사례수는 여자 중학생 129명, 남자 중학생 169명, 여자 고등학생 435명,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 94명으로 함께 82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척도

분석에 포함된 척도들에 대한 간략한 기술들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종교적 편견”을 측정하였다. 종교적 편견은 ‘인지적 · 정서적 · 행동

23) 백준흠, 청소년의 종교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24) 편집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나 또는 학생과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작성을 하지 않은 설문지 등을 제외시키는 작업이었다. 애초에 1,01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설문지는 수거된 설문지의 81.9%에 해당하는 827부였다.

적 요소를 포함한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 청소년과 그들 어머니의 종교적 편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단군신전, 조상제사, 그리고 사찰의 전통적 유산 인정 여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2개 항목씩의 질문을 만들어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Likert 유형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각각에게 적용한 종교적 편견 척도들은 0.68-0.86의 내적 일관성 정도(Cronbach α)를 보여 척도로써 사용할 만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각 척도 항목들을 단순 합계하여 구성변수(composite variable)를 만들고 이를 모델 검증에 이용하였다. 각 척도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 변수는 종교성(religiosity)이다. 종교성은 내면화된 믿음 체계나 몰입 정도, 또는 종교 활동 정도 등을 의미한다.²⁵⁾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종교의 중요성, 신봉 종교, 신앙 열성도, 종교 참여 정도, 교리 인지도, 신앙 기간, 신앙의 동기²⁶⁾, 종교적 지원(종교적 네트워크 및 종교의 사회적 지원) 등을 측정하였다.

종교의 중요성은 '종교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가를 지각하는 정도'로써 더들리와 더들리(Dudley & Dudley)²⁷⁾의 종교의 중요성 20개 항목 척도 가운데 3문항을 선택하여 설문지에 삽입하였다. 신봉 종교는 '현재 어느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지'를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한 개의 설문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리고 신앙 열성도는 '앞에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가'를 6점 Likert 유형 1개 설문 항목에 의해 측정하였다.²⁸⁾ 교리 인지도는 '현재 신앙하고 있다고 응답한 그 종교의 교리

25) Johnstone, Ronald L.(1992), Religion in Society: A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26) Allport & Ross(1967)에 의해 제창되고 Kirkpatrick에 의해 정교화된 신앙동기의 두가지 차원 3개 척도를 차용하였다. 두 가지 차원은 본질적 종교성(intrinsic religiosity)과 비본질적 종교성(extrinsic religiosity)을 말한다. Kirkpatrick(1989)은 Allport & Ross의 두 차원 가운데 비본질적 종교성 차원을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과 '개인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으로 나누었다.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이란 지위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사교적 목적 등 개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종교에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개인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은 '정신 안정이나 심리적 위안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앙 동기에 따른 종교성은 목적으로써 종교를 접근하는 본질적 종교성 한 차원과 수단으로써 종교를 접근하는 비본질적 종교성 두 개 차원을 합하여 세 개 차원이 측정되었다.

27) Dudley, R. L. & Dudley, M. G., Transmissions of religious values from parents to adolescent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8, 1986, 3-15.

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정도를 역시 6점 Likert 유형 1개 설문 항목에 의해 측정하였다. 종교 참여 정도는 '신봉하고 있는 종교를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를 8개 범주²⁸⁾를 측정하였다. 신앙 기간은 '현재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를 본격적으로 신앙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몇 년 정도인지'를 질문하여 신앙 지속기간을 파악하였다. 종교적 지원은 종교적 네트워크와 종교적 지원 두 개 차원을 측정하였다. 종교적 네트워크는 '일차 집단내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5개 문항, 어머니 6개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 유형 5점 척도이었다. 그리고 종교적 지원은 '주변의 종교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도구적·정보적 도움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Likert 유형 5점 척도 6개 문항씩을 청소년과 어머니에게 적용하였다. 이들 척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 내용들은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종교성과 종교적 편견 척도들은 대부분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퍼스넬리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3개 변수들을 도입하여 종교성과 종교적 편견간 관계 검증에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들 3개 변수는 자아 존중감과 내·외적 통제감 변수이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로젠버그³⁰⁾의 10개 항목척도를 차용하였다. 그리고 통제감(locus of control)은 '자신의 운명이 내적 혹은 외적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적 통제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정도를 의미하고, 외적 통제감은 사람의 운명이 운(幸運)과 같은 외부 요소들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믿음 정도를 의미한다. 내·외적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3개 항목씩을 설문지에 삽입하였다. 전체적으로 '외적 통제감'의 내적 일관성 정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 다른 척도들은 비교적 안정된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임으로써 구성 변수 척도를 구성하여 모델 검증에 사용하였다.

28) 종교를 신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0점을 부여하였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신자이지 별로 열심히 믿고 있지 않다'(1점)부터 '매우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편이다'(6점)까지 자신의 신앙 열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9) 종교를 신앙하고 있지 않다(0), 일주일에 여러 번(1), ... 1년에 1-2번 정도(7), 그리고 '그 보다 더 드물게'(8)까지 8개 범주 서열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30)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표 1 > 주요 척도들의 기술적 통계치

구분	척도 이름	학 생				어머니			
		항목	평균	SD	α	항목	평균	SD	α
종속	편견: 단군숭배	2	5.07	1.99	0.75	2	5.34	1.83	0.78
	편견: 조상제사	2	4.77	2.42	0.86	2	5.06	2.16	0.82
	편견: 사찰문화재에 대한 태도	2	5.04	1.82	0.68	2	5.46	1.83	0.73
독립	종교성: 본질적 종교성	8	20.27	6.55	0.83	8	22.64	6.22	0.83
	종교성: 비본질적 종교성(사회적)	3	8.06	2.98	0.86	3	7.12	2.55	0.80
	종교성: 비본질적 종교성(개인적)	3	8.84	3.33	0.86	3	9.25	3.21	0.84
	인생에서 종교의 중요성	3	2.91	3.31	0.86	3	8.44	3.22	0.86
	신봉종교(명목척도)	1	-	-	-	1	-	-	-
	신앙열성도(6점 척도)	1	2.05	1.75	-	1	2.57	2.04	-
	종교참여빈도(1개월 평균 회수)	1	4.53	3.31	-	1	4.69	3.34	-
	교리인지도(6점 척도)	1	2.09	1.66	-	1	2.52	1.89	-
	신앙기간(평균 년수)	1	6.20	6.07	-	1	10.37	11.48	-
	종교적 네트워크	5	13.69	4.47	0.79	6	17.18	5.07	0.79
통제	종교적 지원	6	16.77	6.58	0.94	6	17.74	6.33	0.93
	자아존중감	10	31.61	5.63	0.83	-	-	-	-
	내적 통제감	3	12.28	2.16	0.71	-	-	-	-
	외적 통제감	3	9.16	2.35	0.53	-	-	-	-

IV. 결과의 분석

먼저 위에서 제기한 문제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비종교적 청소년들에 비하여 종교적 청소년들이 종교적 편견 문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와 종교 집단별 종교적 편견 정도에서 차이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각 집단별 평균 차이의 유의미 검증을 위해 ANOVA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적 편견은 단군 숭배, 조상 제사, 그리고 전통 사찰들의 국가 문화재 지정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Likert 유형 5점 척도 2개 문항들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점수 분포는 2점에서 10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단군숭배, 조상제사, 사찰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종교적 편견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분석 결과

< 표 2 > 종교 집단별 종교적 편견 평균 차이 유의 검증 (ANOVA)

	학 생				어 머 니			
	집단(N)	평균	F-값	유의수준	집단	평균	F-값	유의수준
편견:단군숭배	무종교(232)	4.25	40.20	p<0.001	무종교(223)	4.74	31.46	p<0.001
	불 교(64)	4.33			불 교(156)	4.87		
	천주교(55)	4.27			천주교(61)	5.00		
	개신교(342)	6.11			개신교(293)	6.33		
	원불교(123)	4.45			원불교(83)	4.67		
	기 타(11)	5.18			기 타(11)	5.09		
	전 체(827)	5.07			전 체(827)	5.34		
편견:조상제사	무종교(232)	3.82	62.50	p<0.001	무종교(223)	4.34	61.68	p<0.001
	불 교(64)	3.75			불 교(156)	4.03		
	천주교(55)	3.84			천주교(61)	4.82		
	개신교(342)	6.27			개신교(293)	6.55		
	원불교(123)	3.38			원불교(83)	3.99		
	기 타(11)	4.55			기 타(11)	3.82		
	전 체(827)	4.77			전 체(827)	5.06		
편견:사찰문화제	무종교(232)	4.65	18.27	p<0.001	무종교(223)	5.35	32.03	p<0.001
	불 교(64)	4.67			불 교(156)	4.60		
	천주교(55)	4.76			천주교(61)	5.10		
	개신교(342)	5.70			개신교(293)	6.36		
	원불교(123)	4.24			원불교(83)	4.43		
	기 타(11)	5.18			기 타(11)	5.27		
	전 체(827)	5.04			전 체(827)	5.46		

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적 편견 3개 차원은 학생과 어머니 집단에서 4.77-5.46점의 평균점수 분포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반대와 찬성이 양립하는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집단간 커다란 차이를 알 수 있다. 집단간 차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 테스트를 한 결과 학생-어머니 두 집단 모두에서 그리고 종교적 편견의 모든 차원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종교인을 포함한 다른 종교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신교 집단은 무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단군신앙, 조상제사, 사찰문화제 지정 문제에 대해 두드러지게 강한 반대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인 종교인과 비종교인간 종교적 태도에서의 차이는 사실상 비종교인과 종교인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인과 비종교인을 포함한 기타 종교인간 차이의 문제로 압축되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 관계의 검증 문제이다. 종속변수는 종교적

편견 변수 3개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종교성 변수는 본질적·비본질적 종교성 3개 차원, 신봉종교 및 참여 정도, 신앙열성도, 교리에 대한 지식, 신앙 지속 년수, 종교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종교적 네트워크 및 지원 변수 11개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 자아 존중감 및 내·외적 통제감 변수 3개를 도입하였다. 이들 주요 변수들간 관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변이 분석으로써 단순 상관관계 분석과 다변이 분석으로써 다중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들은 <표 3>과 <표 4>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먼저 단순 상관계수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단군 숭배와 조상 제사 문제는 본질적 종교성과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과 꽤 높은 정적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였다. 즉, 종교를 목적으로 신앙하든 혹은 수단으로 신앙하든 간에 이들 변수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단군숭배와 조상제사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인생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수록, 교리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신앙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을수록 단군숭배와 조상제사에 대해 높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종교적일수록 단군숭배나 조상제사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사찰의 국가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그 관계의 정도는 다소 낮지만 위의 두 가지 차원과 비슷한 관계 유형을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또 다른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주목된다. 하나는 본질적 종교성과 비본질적 종교성간의 관계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개념은 종교적 신앙의 동기에 관한 것이고, 이는 편견과 같은 종교의 부정적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었다. 즉, 본질적 종교성과 같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등성과 형제애, 동정과 인정, 공유와 협동, 관용 등의 종교적 가르침의 내용을 순수하게 내면화함으로써 편파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종교를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비본질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높은 편견의 정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는 본질적 종교성과 비본질적 종교성이 서구문화권 연구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대립되는 배타적 차원³¹⁾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적 종교성과 개인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간의 상관관계는 0.76으로써 매우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였고, 나머지 두

31) 본질적 종교성과 비본질적 종교성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

개의 상관계수도 0.22와 0.38로써 비교적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가 서구 문화권과는 다른 종교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요인 분석 결과도 본질적 종교성 항목들과 개인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 항목들이 같은 요인에 높게 부하되었다. 따라서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종교성 차원을 기계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의 가족 내지는 일차집단 응결성 정도이다. 물론 종교적 신념은 독특한 하위문화를 구성하기 때문에 종교의 신앙은 때론 기존의 일반적 신념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은 가장 신뢰스런 사람들, 즉 일차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종교적 네트워크 및 종교적 지원 변수와 다른 종교성 변수들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면 대체로 0.50이상 0.90까지의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였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같은 주변 종교적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서적·도구적·정보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종교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신앙에 열성적이며, 오랜 동안 종교신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종교의 가족 내지 일차집단 응결성이라 이름붙이고자 한다. 이러한 종교의 일차집단 응결성은 종교의 배타적 신념을 포함하는 종교적 신념이 일차집단 내에서 강하게 사회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표본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들과 그들의 어머니의 종교적 편견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종교적 신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 자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다중 회귀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분석에 삽입한 변수군(群)은 신봉종교, 종교의 중요성, 신앙 열성도, 종교 참여빈도, 교리에 대한 지식, 신앙 지속 기간 등 종교성 관련 변수들과 종교적 네트워크 및 종교적 지원 변수군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본질적·비본질적 종교성 3개 차원이 모델에 삽입되었고, 통제 변수로는 자아개념 변수 3개가 포함되었다. 총 14개 변수가 종교적 편견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에 삽입되었다.

< 표 3> 주요 변수들간 단순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편견:단군숭배	-													
2. 편견:조상제사	.66 ^a	-												
3. 편견:사찰문화재	.46 ^a	.40 ^a	-											
4. 본질적 종교성	.51 ^a	.53 ^a	.29 ^a	-										
5. 비본질적:사회	.08	.02	-.05	.22 ^a	-									
6. 비본질적:개인	.45 ^a	.47 ^a	.20 ^a	.76 ^a	.38 ^a	-								
7. 종교의 중요성	.49 ^a	.54 ^a	.25 ^a	.84 ^a	.28 ^a	.85 ^a	-							
8. 신앙 열성도	.38 ^a	.36 ^a	.22 ^a	.68 ^a	.27 ^a	.66 ^a	.70 ^a	-						
9. 교리 지식	.39 ^a	.38 ^a	.22 ^a	.57 ^a	.26 ^a	.60 ^a	.64 ^a	.83 ^a	-					
10. 신앙 연수	.35 ^a	.39 ^a	.20 ^a	.44 ^a	.15 ^a	.46 ^a	.52 ^a	.58 ^a	.63 ^a	-				
11. 종교 네트워크	.37 ^a	.43 ^a	.14 ^a	.58 ^a	.22 ^a	.58 ^a	.60 ^a	.54 ^a	.54 ^a	.51 ^a	-			
12. 종교 사회지원	.48 ^a	.50 ^a	.21 ^a	.83 ^a	.34 ^a	.88 ^a	.90 ^a	.75 ^a	.68 ^a	.54 ^a	.65 ^a	-		
13. 자아 존중감	-.02	-.05	-.06	.10 ^a	.01	.10 ^a	.10 ^a	.16 ^a	.11 ^a	.05	.03	.13 ^a	-	
14. 내적 통제감	-.06	-.12 ^a	-.11 ^a	-.04	.04	.06	.02	.04	.03	.00	.04	.06	.31 ^a	-
15. 외적 통제감	-.04	-.01	-.04	-.10 ^b	.03	-.05	-.08	-.18 ^a	-.13 ^a	-.03	-.01	-.10 ^b	-.32 ^a	-.28 ^a
16. 종교 참여 빈도	.08	.06	.00	.09 ^a	.12 ^a	.24 ^a	.21 ^a	.42 ^a	.50 ^a	.47 ^a	.20 ^a	.25 ^a	.05	.03
17. 母신앙열성도	.28 ^a	.31 ^a	.13 ^a	.38 ^a	.12 ^a	.41 ^a	.42 ^a	.52 ^a	.50 ^a	.49 ^a	.55 ^a	.46 ^a	.03	.01
18. 母편견:단군	.50 ^a	.48 ^a	.29 ^a	.30 ^a	-.02 ^a	.27 ^a	.28 ^a	.22 ^a	.27 ^a	.33 ^a	.37 ^a	.30 ^a	.01	-.04
19. 母편견:제사	.43 ^a	.61 ^a	.27 ^a	.43 ^a	-.01 ^a	.38 ^a	.41 ^a	.29 ^a	.35 ^a	.36 ^a	.41 ^a	.40 ^a	-.02	-.07 ^a
20. 母편견:사찰	.31 ^a	.36 ^a	.48 ^a	.23 ^a	-.03 ^a	.17 ^a	.21 ^a	.15 ^a	.19 ^a	.22 ^a	.19 ^a	.20 ^a	-.04	-.05
21. 母본질적종교성	.34 ^a	.42 ^a	.19 ^a	.51 ^a	.07 ^a	.49 ^a	.51 ^a	.44 ^a	.44 ^a	.40 ^a	.57 ^a	.53 ^a	.06	-.01
22. 母비본질:사회	.06	.04	-.01	.16 ^a	.22 ^a	.21 ^a	.16 ^a	.20 ^a	.16 ^a	.15 ^a	.24 ^a	.20 ^a	-.01	.02
23. 母비본질:개인	.28 ^a	.36 ^a	.12 ^a	.42 ^a	.13 ^a	.50 ^a	.46 ^a	.41 ^a	.41 ^a	.37 ^a	.52 ^a	.49 ^a	.05	.01
24. 母종교의중요성	.35 ^a	.42 ^a	.17 ^a	.49 ^a	.11 ^a	.51 ^a	.53 ^a	.45 ^a	.45 ^a	.45 ^a	.59 ^a	.54 ^a	.04	-.01
25. 母종교참여빈도	.03	.05	.06	.02	-.09 ^b	-.04	-.03	-.16 ^a	-.14 ^a	-.17 ^a	-.11 ^b	-.06	-.01	-.08 ^a
26. 母교리지식	.26 ^a	.28 ^a	.09 ^a	.35 ^a	.13 ^a	.38 ^a	.39 ^a	.49 ^a	.50 ^a	.51 ^a	.53 ^a	.43 ^a	.04	.04
27. 母신앙 연수	.22 ^a	.26 ^a	.10 ^b	.27 ^a	.08 ^a	.27 ^a	.31 ^a	.32 ^a	.36 ^a	.49 ^a	.39 ^a	.33 ^a	.02	.03
28. 母종교적네트워크	.24 ^a	.28 ^a	.05	.39 ^a	.09 ^a	.37 ^a	.38 ^a	.37 ^a	.35 ^a	.34 ^a	.58 ^a	.40 ^a	.02	-.01
29. 母종교적 지원	.32 ^a	.36 ^a	.13 ^a	.47 ^a	.12 ^a	.50 ^a	.51 ^a	.46 ^a	.44 ^a	.44 ^a	.60 ^a	.54 ^a	.05	.00
Significant level: ^a p < 0.001; ^b p < 0.01; ^c p < 0.05														

< 표 3 > 주요 변수들간 단순상관계수 (계속)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5. 외적 통제감	-													
16. 종교 참여 빈도	.04	-												
17.母신앙열성도	-.06	.35 ^c	-											
18.母편견:단군	-.02	.06	.35 ^c	-										
19.母편견:제사	-.01	.06	.37 ^c	.58 ^a	-									
20.母편견:사찰	.01	.02	.16 ^c	.42 ^a	.48 ^a	-								
21.母본질적종교성	-.08	.17 ^c	.69 ^a	.44 ^a	.49 ^a	.24 ^c	-							
22.母비본질:사회	.00	.15 ^c	.30 ^c	.06	.05	-.11 ^b	.29 ^c	-						
23.母비본질:개인	-.07 ^c	.22 ^c	.67 ^a	.35 ^c	.40 ^a	.10 ^b	.77 ^a	.42 ^a	-					
24.母종교의중요성	-.07 ^c	.20 ^c	.73 ^a	.41 ^a	.46 ^a	.18 ^c	.84 ^a	.38 ^c	.84 ^a	-				
25.母종교참여빈도	.09 ^c	.36 ^c	-.40 ^a	.02	.08	.13 ^c	-.06 ^b	-.16 ^c	-.20 ^c	-.17 ^c	-			
26.母교리지식	-.06	.34 ^c	.88 ^a	.34 ^c	.32 ^c	.13 ^c	.64 ^a	.30 ^c	.64 ^a	.68 ^a	-.48 ^a	-		
27.母신앙 연수	-.03	.24 ^c	.58 ^a	.25 ^c	.27 ^c	.09 ^c	.43 ^a	.22 ^c	.44 ^a	.49 ^a	-.35 ^c	.60 ^a	-	
28.母종교적네트워크	-.01	.14 ^c	.47 ^a	.26 ^c	.31 ^c	.06	.56 ^a	.32 ^c	.50 ^a	.55 ^a	-.11 ^b	.44 ^a	.39 ^a	-
29.母종교적 지원	-.05	.24 ^c	.74 ^a	.40 ^a	.41 ^a	.14 ^c	.83 ^a	.42 ^a	.86 ^a	.89 ^a	-.22 ^c	.70 ^a	.52 ^a	.58 ^a

Significant level: ^a p < 0.001; ^b p < 0.01; ^c p < 0.05

먼저 단군 숭배 차원과 관련하여, 단군 숭배 변수의 총 변량 가운데 34%가 본 연구가 분석 모델에 삽입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14개 변수 가운데, 신봉 종교와 본질적 종교성,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유의미한 순효과(net effect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에 삽입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이들 4개 변수가 단군 숭배에 대한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 종교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정도로 단군 신앙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본질적 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가 낮을수록 단군 신앙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제사와 관련하여서는 모델에 포함된 14개 변수들이 공동으로 설명한 조상 제사 변수의 변량은 46%이었다. 조상 제사 변수는 모델에 포함된 거의 모든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종교, 종교의 중요성, 신앙 열성도, 종교 참여 빈도, 교리에 대한 지식, 신앙 지속 기간, 종교적 네트워크, 본질적 종교성,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 자아 존중감, 그리고 내적 통제감이 유의미한 순효과를 보였다. 개신교 신봉 학생들은 역시 조상 제사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일수록, 종교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교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신앙을 오랜 동안 지속하여 왔을수록 조상 제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조상 제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종교를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조상 제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과 자아 존중감, 그리고 내적 통제감은 부적 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 표 4 > 종교적 편견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종교적 편견: 단군숭배			종교적 편견: 조상제사			종교적 편견: 문화제		
	r	b	Beta	r	b	Beta	r	b	Beta
종교: 불 교 ^d	-	-0.12	-0.02	-	0.17	0.02	-	0.34	0.05
종교: 천주교 ^d	-	-0.48	-0.06	-	-0.12	-0.01	-	0.25	0.04
종교: 개신교 ^d	-	0.73*	0.18	-	1.47***	0.30	-	0.89**	0.24
종교: 원불교 ^d	-	-0.18	-0.03	-	-0.30	-0.04	-	-0.14	-0.03
종교: 기 타 ^d	-	0.69	0.04	-	0.80	0.04	-	0.71	0.05
종교의중요성	0.49***	0.05	0.08	0.54***	0.15**	0.02	0.25***	0.03	0.05
신앙 열성도	0.38***	-0.05	-0.05	0.36***	-0.18*	-0.13	0.22***	0.06	0.06
종교참여빈도	0.08*	0.05	0.08	0.06	0.11**	0.15	0.00	0.09**	0.07
교리의 지식	0.39***	0.12	0.10	0.38***	0.16*	0.11	0.22***	0.11	0.10
신앙지속기간	0.35***	0.03	0.08	0.39***	0.03*	0.08	0.20***	0.02	0.07
종교 네트워크	0.37***	0.01	0.03	0.43***	0.06***	0.12	0.14***	-0.03	-0.07
종교적 지원	0.48***	0.01	0.04	0.50***	0.00	0.01	0.21***	-0.05*	-0.19
본질적종교성	0.51***	0.07***	0.23	0.53***	0.06**	0.17	0.29***	0.07***	0.24
비본질적 종교성: 사회적	0.08*	-0.04**	-0.06	0.02	-0.10***	-0.13	-0.05	-0.06**	-0.10
비본질적 종교성: 개인적	0.45***	0.03	0.04	0.47***	0.02	0.03	0.20***	0.02	0.03
자아 존중감	-0.02	-0.02*	-0.06	-0.05	-0.03**	-0.07	-0.06	-0.03*	-0.08

내적 통제감	-0.06	-0.02	-0.03	-0.12***	-0.09**	-0.08	-0.11***	-0.04	-0.05
외적 통제감	-0.04	-0.02	-0.02	-0.01	-0.02	-0.02	-0.04	-0.03	-0.04
R ²	0.34			0.46			0.18		
d: Dummy variable (무종교 범주가 생략되었음)									
유의 수준: *** p < 0.001 ** p < 0.01 * p < 0.05									

사찰 문화재 변수는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에 의해 가장 설명이 안 된 개념이었다. 전체 변량 가운데 18%만이 우리의 선행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사찰 문화재 지정에 대한 태도에 순효과를 미치고 있는 변수는 신봉 종교와 종교적 지원, 본질적 종교성,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찰 문화재에 대해 높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적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본질적 종교성 정도가 높을수록 이 차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아 존중감과 종교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은 부정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종교성은 종교적 편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가 건전하고 균형잡힌 사고보다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태도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 자료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같은 일차 집단에 의해 응결된 종교적 태도가 청소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편견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중소도시에 있는 중립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종교가 관용과 동정보다는 신념적 배타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기존 경험적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Allport & Ross에 의해 시도되었던 “종교적 편견은 일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들 때문”이라는 설명도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오히려 종교를 인생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본질적 종교성이 종교적 편견 3개 차원 모두에서 편견에 유의미한 긍정적 순효과를 보였다. 즉, 종교를 인생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단군 숭배와 조상 제사, 그리고 사찰 문화재 지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의 가정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을 가진 학생들은 낮은 편견의 정도를 보였다. 즉, 도구적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학생들일수록 건전한 비판의식과 균형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어, 맹목적인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지향된 비본질적 종교성은 본질적 종교성과 상관 정도가 높아 다중회귀 분석에 삽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독립적인 순효과 정도를 보이지는 못했다.

또 다른 한편 자아 존중감은 종교적 편견 3개 차원 모두에 유의미한 부정적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통제감도 조상 제사에 대해 부정적 순효과 정도를 보였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낮은 종교적 편견 정도를 보였다. 따라서 자주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일수록, 건실한 자아 개념을 가진 학생들일수록 낮은 종교적 편견 정도를 보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점은 개신교 신앙 학생들의 높은 종교적 편견 태도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태도가 그들의 어머니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내에서 종교적 신념이 여과 없이 세대간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응결성이 기독교 집단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의 미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안목을 제시하여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종교들이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각종 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집단 이기주의적 신념으로 무장을 하고 타집단에 대해 배타적 독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드리우는 사실이라 하겠다. 종교가 잠재적 집단 갈등과 사회적 균열요소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서(1995), 「종교 갈등을 넘어서는 길」, 재단법인대한불교진흥원, 《多寶》 13(3월호).
- 노길명(2000), 「한국 종교문화의 성격과 과제」, 정산종사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未來社會와 宗教.
- 백준흠, 청소년의 종교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 윤이흠(1987), 「종교 갈등의 현실과 화해의 모색: 한국의 상황에서」, 현대사회 7권 1호(통권 25호).
- 정순일·한내창(1997), 「종교성과 사회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1.
- Altemeyer, B.(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llport, Gordon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Allport, Gordon W. & Ross, J. Michael,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 Batson, C. Daniel, Religion as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 1976.
- Batson, C. Daniel, Naifeh, Stephen J. & Pate, Suzanne, Social desirability, religious orientation, and racial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 1978.
- Donahue, Michael J.,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985.
- Duckitt, J.(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York: Praeger.
- Dudley, R. L. & Dudley, M. G., Transmissions of religious values from parents to adolescent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8, 1986.
- Eisinga, R., Felling, A. & Peters, J., Religious belief, church involvement, and ethnocentrism in the Netherland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990.
- Griffin, Glenn A. Elmer, Gorsuch, Richard L. & Davis, Andrea-Lee, A cross-

- cultural investigation of religious orientation, social norms, and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6, 1987.
- Glock, C. Y. & Stark, R.(1966), *Christian Beliefs and Anti-Semitism*, New York: Haper and Row.
- Haught, James A.(1990), *Holy Horrors: An Illustrated History of Religious Murder and Madness*, New York: Prometheus Books.
- Hunsberger, Bruce, Religion and prejudice: the rol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 right-wing authoritarianism, *Journal of Social Issues*, 51, 1995.
- Johnstone, Ronald L.(1992), *Religion in Society: A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Kirkpatrick, L. A.(1988),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s, pp. 1-31, in D. O. Moberg and M. L. Lynn (ed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 Greenwich, CT: JAI Press.
- Lazerwitz, Bernard, Winter, J. Alan & Dashefsky, Arnold, Localism, religiosity, orthodoxy, and liberalism: the case of Jew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7, 1988.
- Rokeach, Milton(1960), *The Open and Closed Mind: Investigations into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and Personality Systems*,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pson, Andrew D., Open-mindedness and indiscriminate anti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3, 1974.